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해 이장(1 월 27 일 축일)

우리 정교회는 1 월 27 일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이셨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성해를 이장한 날로 기념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성찬예배서를 만든 분으로 그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은 주후 347 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스도교 신자인 어머니 안투사가 홀로 훌륭하게 길렀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저명한 스승으로부터 수사학과 신학을 배웠고, 학업을 마치고 사막으로 떠나 성서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381 년, 안티오키아로 돌아와 보제서품과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성서에 대한 해설과 설교를 잘하기로 또한 사목 활동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안티오키아를 넘어 널리 퍼졌고, 397 년 말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성인의 설교는 회중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모스'(황금 입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의 훌륭한 설교문과 논문, 서신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인은 제국의 수도를 총괄하는 총대주교로서 신자들이 교회의 풍부한 영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성찬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는 설교를 통해 부자들의 무절제한 낭비와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권력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도키아 황후가 저지른 불공정한 일과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두 번씩이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407 년 9 월 14 일, 두 번째 유배를 떠나는 도중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결국 폰도의 꼬나마 지역에서 향년 60 세로 안식하였습니다.

수 없는 모함과 고초 속에서 박해와 유배로 가득 찼던 성인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인내와 끈기뿐만 아니라 복수를 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 장 20 절의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인은 깊게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성인은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오 5, 10)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바른 양심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참된 행복을 마음속에 유지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박해받는 필립비 지역의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필립비 1,29) 이 말씀처럼 성인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겪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으며 오히려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은사’라고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추방당해 살았던 유배지나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바치면서도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영광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사업에 헌신한 성인을 멸시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성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인내와 용기 그리고 거룩함을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성인은 영광과 존경을 받으며 성대한 축일이 열리고,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를 추방한 후, 에브도키아 황후는 매우 위중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고름과 구더기가 가득했으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은 안치된 돌판 위에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438년에 황제가 된 에브도키아의 아들인 테오도시오스 2세는 프로클로스 총대주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성해를 콘스탄티노플의 꼬마나에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는 애절한 마음과 경외심을 표하며 성해를 정중하게 맞이하고 친구했습니다. 1월 27일, 성해는 장엄한 교회 행렬로 성 이리니 성당의 주교좌에 모셔졌고, 모두가 다 함께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성인이시여, 당신의 주교좌를 만끽하십시오!" 다시 성해는 황제의 마차로 성 사도들의 성당으로 운구되어 돌로 된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제야 에브도키아 황후의 흔들리던 관이 멈췄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이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에브도키아 황후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를 추방했지만, 너무도 슬픈 종말을 맞이 않았습니까! 그러나 청빈하고 세속적 권력과 담을 쌓고 살다 추방당했던 성인은 총대주교좌에서 억울함을 벗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다시 자리 잡게 되었고, 하느님으로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아 후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고 싶을까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쪽에 속하게 된다면 세상의 잡다한 슬픔과 교활한 사람들에게 받는 불의와 박해 앞에서 절망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며 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한 박해로 고통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거룩함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고린토 후서 4장 17절의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라는 성서 말씀처럼 보장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